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

### 시도지사협의회, 교류회의 열고 지방주도형 감염병 대응 사례 중심 주제 발표·토론 이어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일 지방정부의 우호 교류는 지속됐다.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등이 함께한 이번 교류회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한·중·일 지방정부의 노력'이란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난타 제작자로 유명한 송승환 예술감독의 '포스트코로나 시

대, 문화가 경쟁력이다' 주제의 기초강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방주도형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3개국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이 이끌고, 한국 패널에는 체흥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명수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에는 저우닝성 부성장 일본에서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가 참여했다.

2일 차인 5일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했던 한·일·한·중·중·일, 한·중·일 지방정부 간 개별 교류가 이뤄지는 교류의 광장이 200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류의 광장에서는 내년도 국제화 사업과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3국 간 연대와 협력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은 "이번 교류 회의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깊게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한·중·일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신영대 의원 "군산항 준설 대란 해결된다"

군산항 내 매물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이 2021년도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4,287억 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된 토사를 투기할 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급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

300만㎡의 토사 매물 현상이 지속돼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 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을 위해서 준설을 위해서 준설

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도의 관문이자 국가 무역항인 군산항 운영에 필수적인 준설의 물꼬가 트여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국민의힘은 4일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기초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권 예산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 호남권 예산 확보 행보 이어가 | 국회, 광역단체장 등과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국민의힘은 4일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기초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호남권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예결위원장), 배준영 동행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호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 글로벌자유무역지역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에서 힘을 합쳐 전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안주동행의원, 예결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전북은 고항인 충북 다음으로 쟁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전북예결위원 6명과 함께, 전북 예산 민들이내는데 노력하겠다"면서 "8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감액해결, 증액하는데 함께 힘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전북과 관련된 사업들은 최철한 것을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50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해 호남동행의원들이 각 지역의 법안, 자매결연 등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호남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종배 예결위원(완주군 동행)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6년 연속 예결위원)을 비롯한 13명의 호남동행 예결위원들이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동분서주'

### 성경찬 도의원,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과 면담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을 만나,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해왔고,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월에 각 시도에서 법정기한 내 선거구를 확정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8일 제386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 행감·본예산 심사 대비

####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4일과 5일 양일간 정읍 황토현관광 어울림센터에서 연찬회를 갖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8일 개최하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설정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분야별로 정책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심사자료의 쟁점사항 및 질의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을 실시했다.

이후, 2022년도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위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문건위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4일과 5일 이틀간 오는 8일 개최하는 제386회 정례회를 앞두고, 본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4일 오전에는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3개 실·국·의 2022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질의했으며, 본예산 편성과 심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스포츠 선진 복지국가' 힘 모은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북 찾아 간담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21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위해 전북을 찾았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상황 ▲시도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과제 ▲스포츠인 종합교육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가 민선체제로 바뀔만큼 체육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체육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체육 재원을 확보하고 스포츠 선진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진흥부표인 수익금 50% 확보, 국무총리

실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 등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각종 제안 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강산 회장과 시·군체육회장들은 지방체육회 재정자립 기반 구축,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금급 사업 지원 확대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기흥 회장은 "민선체육회장 시대 가 됐다 법정법인이 됐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 조직운영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지방체육,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을 비롯해 전국 모든 체육인들이 팔팔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